

2019년 12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전원 특강/ 설혜심(연세대 사학과 교수)

마녀사냥을 보는 다양한 시선

1. 고전적 접근
2. 사회 희생양 이론
3. 인류학적 방법론의 도입
4. 국가권력과 사법체계
5. 성의 통제
6. 악마론과 심리분석적 접근

마녀사냥이란 유럽에서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술(witchcraft)을 부린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건을 일컫는다. 19세기 이래로 서양의 역사학계는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 처음 마녀사냥이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¹⁾ 물론 마녀사냥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사의 주요 쟁점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그 와중에 새로운 사건이나 해석들이 뒤늦게 소개되는 것이 한국 학계의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무려 삼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육된 이 엄청난 사건이 십여 년 전까지 교과서--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이고 대학교 텍스트에서조차--에서 단 한 줄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존 교과서는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규명되는 사건을 선별해서 수록하는 경향이 짙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마녀사냥은 수많은 학자가 그 원인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사안으로, 아직도 명확하게 그 원인이 규명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기에는 곤혹스런 주제였을지도 모른다. 둘째, 기존 교과서는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구분의 틀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구성을 통해 한 시대를 소개했다. 마녀사냥은 중세와 근대에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잡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한 시대에, 특정한 요소 안으로 온전히 귀속시키기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셋째, 마녀는 남성이 아닌 여성, 엘리트가 아닌 하층민, 정통과학이 아닌 마술에 귀의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들의 공통분모가 만들어 내는 극단적인 소외집단이다. 엘리트, 남성, 정치사 위주의 견고한 역사서술의 전통 속에서 이 주제는 발을 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녀와 마녀사냥을 둘러싼 많은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더욱이 ‘검은 색 뿔족모자를 쓴 채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할망구’와 같이 대중적 차원에서 희화화된 마녀의 이미지는 마녀사냥이 담고 있는 심각성이나 복잡함을 희석시키기도 한다. 먼저 몇 가지 큰

1) 조한욱, 「마녀사냥의 마법」, 『역사비평』 제 29호(1994); 설혜심, 「16, 17세기 마녀사냥을 통해 본 역사학의 확대」, 『역사학보』 제 155호(1997).

오해를 바로잡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다. 우선, ‘마녀’는 여성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마녀는 영어식 표기 witch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itch를 처음 번역할 때 생긴 오류가 관례화되어 마녀라는 여성명사가 고착화되었다. 물론 통계적으로 마녀사냥의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서양 문화에서도 마녀를 여성성과 결부시키곤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남성 역시 마녀로 몰려 희생되었고, ‘마술을 부리는 자’라는 범주는 성적 차별이 없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마녀사냥은 마술이나 마녀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흔히 백마술과 흑마술로 나누어지는 마술(magic)은 그 기원을 고대문명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이런 마술의 전통은 중세유럽의 기독교화 과정에서도 소멸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독교는 백마술의 상당부분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녀술은 흔히 마녀가 행한다고 믿어지는 악의적인 마술을 일컫는다. 마녀술을 정의하는 기준 속에는 그 목적이 선의나 악의냐를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가에 따라 고급마술과 마녀술로 구분되는 계급성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마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일상사의 궂은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과학발달이 미진했던 중세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흔히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마술이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포괄적이었고,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오랜 시간동안 평화롭게 타인들과 공존해왔다.

한편, 마녀사냥은 마술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일어난 박해라는 특정한 ‘현상’을 지칭한다. 마녀사냥은 15세기에서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악마론이 있었다. 즉, 마녀가 악마와 결탁한 반사회적인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 것이다. 1484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녀를 처벌할 수 있는 일련의 조서와 『마녀의 망치, Malleus Maleficarum』²⁾라는 책을 범 유럽으로 배포했고,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마녀의 망치』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마녀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이제 마녀는 가톨릭 신앙을 포기하고 악마에게 봉사하는 존재로서 세례 이전의 아동을 악마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자신의 형상을 쉽게 바꿀 수 있다거나 날아다닌다는 이미지도 이 책을 통해 널리 퍼진 것이다. 악마와 마녀가 한데 모여 벌이는 ‘악마의 연회(사바트, Sabbath)’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분명한 상이 정립되었다.

한밤중에 한적한 산이나 들판에 마녀들이 모인다. 그들은 때로는 온몸에 기름을 바른 채, 빗자루나 막대기, 혹은 동물을 타고 날아오거나 동물로 변해서 도착하기도 한다. 처음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기독교적 신성을 부정하고, 성례를 모욕하고 악마에게 충성하는데 악마는 인간의 모습이나 동물, 혹은 반수의 형상을 하고 있다. 주연이 벌어지고, 광란의 춤과 난교가 뒤따른다. 이들 마녀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짜낸 기름과 다른 재료들을 섞어 만든 악마의 향유를 선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³⁾

2) 『마녀의 망치』는 1520년에 이미 14판을 찍어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마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다. 1. 가톨릭 신앙의 포기; 2. 악마에게 정신과 육체를 봉사하는 행위; 3. 세례 이전의 아동을 악마에게 바치는 행위; 4. 악마와의 성관계를 포함하는 연회 참석. 또한 이 책은 대부분의 마녀가 여성이라고 기술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둔하고 변덕스러우며 악하고 더 육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악마의 연회에 대해서는 지역별, 시기별로 많은 변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밤의 모임, 동물로의 변신, 기독교적 신성의 부정, 악마에 대한 충성의 맹세, 주연과 난교, 영아살해와 식인주의와 같은 공

사실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녀사냥은 머리가 쉽게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현상이다. 기존 역사학의 거대담론이 생산해 온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교차하고 중첩하며 때로는 병존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바로 그 중심에 놓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 속에는 역사학자들이 그려온 수많은 전형적 특성들이 얹혀있다. 중세와 근대가 중첩하고, 신성과 세속이 충돌하며, 엘리트와 민중이 교차한다. 환상과 실재가 공존하고, 선과 악이 병존하며, 남성과 여성이 교차하고 믿음과 행위가 중첩된 사건이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마녀사냥을 연구한 성과물들은 다른 역사적 주제들에 대한 탐구에서보다 훨씬 더 풍부한 방법론을 구사해 왔다. 이제 이 복잡한 주제에 접근했던 다양한 시선과 해석의 변화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1. 고전적 접근

마녀사냥을 역사학적 주제로 다룬 최초의 저서는 1843년 솔단(W. G. Soldan)이 내 놓은 것으로 알려진다.⁴⁾ 솔단은 중세 유럽에 존재하던 마녀에 대한 믿음이 『마녀의 망치』에서 응축적으로 드러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기를 맞아 마녀재판이 급증하였으며, 계몽주의와 더불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녀사냥을 법제사와 지성사를 통해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한 이 연구는 마녀에 대한 믿음을 ‘환상’으로 규정하면서 미신을 신봉하는 대표적인 전근대적 현상으로 치부했다. 솔단이 제시한 발단-전개-쇠퇴라는 정렬은 향후 오랫동안 마녀사냥을 보는 일반적인 틀이 되었다.

솔단의 연구가 위로부터의 마녀사냥을 다루었다면,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나타난 쥘 미슐레(Jules Michelet)⁵⁾의 연구는 아래로부터 마녀사냥을 분석하는 시도이다. 미슐레는 유럽세계에 전해오는 많은 신화들을 통해 마녀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세 여성농노의 정신세계를 재구성했다. 솔단과 미슐레가 만들어 낸 이 두 접근법은 이후 마녀사냥을 고찰하는 연구가 커다란 두 흐름으로 나뉘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⁶⁾ 하지만 이 두 흐름은 진보를 믿는 당시의 서구사조의 영향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어서, 18세기에 이르러 마녀사냥이 사라지는 것은 인류가 문명화된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었다.⁷⁾

하지만 1차 대전을 맞아 이성지상주의가 흔들리면서 진보주의적 관점은 후퇴하고 진보에 대한 회의론이 크게 대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부터 몬태규 서머스(Montague Summers)는 솔단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마녀술은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재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⁸⁾ 더욱 파급력이 컸던 것은 마가렛 머레이(Margaret Murray)의 저서였다.⁹⁾ 뛰어

통적인 요소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유럽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는 15세기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Carlo Ginzburg, *Ecstasies*(New York, 1991), p. 1; Jeffrey Russell, *A History of Witchcraft*(London, 1980), 제2장 참조.

4) William Gottfried Soldan, *Geschichte der Hexenprozesse aus dem Quellen dargestellt*(Stuttgart, 1843).

5) Jules Michelet, *La Sorcière*(Paris, 1862).

6) 미슐레 이후 반 세기동안 두 학자의 연구를 보강하는 저작들이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 Joseph Hansen, ed., *Quellen und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s Hexenwahns und der Hexenverfolgung im Mittelalter*(Bonn, 1901); Joseph Hansen, *Zauberwahn, Inquisition und Hexenprozesse im Mittelalter*(Munich, 1900); Nicholas Paulus, *Hexenwahn und Hexenprozess*(Freiburg-im-Breisgau, 1910); Robert Yve-Plessis, *Essai d'une bibliographie française méthodique*(Paris, 1900).

7) William Monter, "The Historiography of European Witchcraft: Progress and Prospects",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2, No. 4(1972), pp. 435~51 참조.

8) Montague Summers, *The History of Witchcraft and Demonology*(London, 1926), p. 3. Summers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Soldan을 비판하는 많은 저작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게

난 이집트학자였던 머레이는 악마의 연회가 기독교 전파 이전의 다이애나 여신숭배와 같이 지금은 사라진 오래 전의 다산숭배 전통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녀에 대한 재판이 강화된다는 것은 기독교적 일체성이 무너지고 이교적 잡신숭배가 부활하는 것의 반증이라는 시각이다.

머레이의 해석에 대해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검증적 역사학의 전통을 계승한 역사가들이 보기에 그녀의 접근법은 일반화의 오류로 점철된, 증명 불가능한 아마추어적 논리라는 이유였다.¹⁰⁾ “머레이같은 학자(Murrayite)”라는 말은 역사학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민속학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을 정도였다.¹¹⁾ 하지만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유럽사회에 이교적 신앙의 전통이 있었다는 머레이의 주장은 오래지 않아 다른 학자들에 의해 다시 진지한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

2. 사회 희생양 이론

이런 고전적 전통 위에, 마녀사냥을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현상으로 다룬 본격적인 연구가 1967년 휴 트래버-로퍼(Hugh Trevor-Roper)에 의해 이루어졌다.¹²⁾ 그는 16·17세기의 마녀소동을 유럽의 “일반적 위기(General Crisis)”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고찰했다. 여기서 말하는 16·17세기의 위기란 유럽 전반에서 대 혼란과 위기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주장을 말한다. 지중해 지역의 국가들이 세력을 잃게 된 반면 영국과 같은 나라가 해상권을 장악해가며 팽창하고, 전염병과 흉작, 사망률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의 감소, 상업 활동의 둔화 및 종교개혁과 반동 종교개혁에 수반되었던 전쟁과 사회혼란, 반란과 혁명 등이 17세기 유럽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을 겪은 후 유럽사회는 18세기가 되어서야 안정 국면에 접어들는 것이다.¹³⁾

그런데 트래버-로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17세기의 대 위기란 르네상스가 초래한 지적, 사회적 변화가 불러온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의 위기’라고 본다. 즉 아직은 봉건적 성격을 지닌 유럽의 국가들이 더 빨리 변해가는 사회와 충돌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마녀사냥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삼은 봉건적 유럽사회가 동화하지 않는 사회세력을 이단으로 몰아 박해하던 전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¹⁴⁾

되었다.

9) Margaret Murray, *The Witch-Cult in Western Europe*(Oxford, 1921); *Idem.*, *The God of the Witches*(London, 1931); *Idem.*, *The Devine King in England*(Oxford, 1954).

10) Murray의 이론을 비판한 대표적 저술로는 C. Lestrangle Ewen, *Some Witchcraft Criticisms*(n. p. 1938); E. Rose, *Razor for a Goat*(Toronto, 1962); Alan Macfarlane, *Witchcraft in Tudor and Stuart England*(London, 1970) 등을 들 수 있다. Murray에 대한 비판은 1. 유럽에 다이애나 숭배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점; 2. 존재했다 할지라도 12세기가 되면 유럽사회의 기독교화가 완성되어 이러한 잡신숭배는 더 이상 큰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 3. 마녀에 관한 믿음이란 악마론과 관련되었고 이교도적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루어졌다.

11) Jacqueline Simpson, “Margaret Murray: Who Believed Her, and Why?”, *Folklore*, Vol. 105(1994), p. 89.

12) Hugh Trevor-Roper, *The European Witch-Craze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nd Other Essays*(New York, 1969).

13) 17세기 대 위기는 그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Geoffrey Parker, ed., *The General Crisis of the Seventeenth Century*(London, 1978); Trevor Aston, ed., *Crisis in Europe 1560-1660*(London, 1965); Michael W. Flinn, *The European Demographic System 1500-1820*(Baltimore, 1981); Theodore Rabb, *The Struggle for Stability in Early Modern Europe*(Oxford, 1976) 등을 참조하라.

14) Trevor-Roper, pp. 46~89.

이렇게 볼 때 마녀는 유럽사회에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때 희생된 피억압계층의 하나가 된다.

트래버-로퍼가 보기에 마녀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신교가 적결하고자 한 불순한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보수적인 가톨릭교회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해 낸 존재이다.¹⁵⁾ 마녀사냥은 사회의 주변부까지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해 보려는 도미니크 교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종교 전쟁기에 절정에 달하고, 새로운 질서와 우주관이 정립된 1650년 이후에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녀사냥을 사회 희생양을 이용한 고도의 통제정책으로 보는 이 시각은 사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그 역학관계를 통해 역사적 현상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한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중세 내내 지속된 마녀와 같은 미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대 위기 이후에도 다시 목도되는 대중적 믿음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치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마녀에 대한 믿음 자체를 부각시키는 연구가 리하르트 키크헤퍼(Richard Kieckhefer)에 의해 시도되었다.¹⁶⁾ 이 연구는 특히 기존 학자들의 마녀사냥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시된 14세기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종교재판 기록이 허구였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¹⁷⁾ 그것은 15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악마론적인 마녀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미지가 재판과정을 통해 대중들에게 주입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은 마녀를 단지 마술(sorcery)을 부리는 존재로 인식했음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마녀를 고발했던 이유와 이를 단죄하는 엘리트의 의도나 해석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간극이라는 명제를 두고 아주 신선하고도 새로운 접근이 카를로 긴즈부르크(Carlo Ginzburg)에 의해 이루어졌다.¹⁸⁾ 긴즈부르크는 작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 등을 줌-인(zoom-in)기법을 통해 꼼꼼하게 복원해 가는 ‘미시사(microhistory)’적 방법론을 제창했다. 그는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프리올리 지방의 이단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마녀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제시했다. ‘베난단티(Benandanti)’라고 불리는 나쁜 마녀와 싸우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마녀라고 표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긴즈부르크는 이 변화를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의 결과물로 보았다. 즉, 순수한 민간신앙이 재판과정을 통해 엘리트들의 악마론에 물들게 되었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긴즈부르크의 연구는 또한 일찍이 머레이가 제시했던 원시적 다산숭배의 전통이 대중의 믿음체계 속에 면면히 이어져왔음을 밝혀냈다는 중요성을 지닌 것이었다. 하지만 긴즈부르크의 시각에서 보자면 마녀의 원류는 다이애나가 아니라 다산과 풍작을 방해하는 다이애나의 대립적 신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3. 인류학적 방법론의 도입

1970년을 기점으로 마녀사냥 연구는 큰 도약을 맞게 되었다. 마녀사냥의 원인을 ‘아래로부

15) *Ibid.*, pp. 183~192 참조.

16) Richard Kieckhefer, *European Witch Trials: Their Foundations in Popular and Learned Culture, 1300-1500*(Berkeley, 1976).

17) 이렇게 재판기록이 허구임을 밝혀냄으로써 14세기에 이단심판 과정에서 대규모의 마녀사냥이 일어났다는 기존 학설이 뒤집혔다. Norman Cohn은 Kieckhefer와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적으로 14세기 재판기록의 허구성을 밝혀내기도 했다. Norman Cohn, *Europe's Inner Demon*(London, 1975).

18) Carlo Ginzburg, *I Benandanti*(Turin, 1966). 우리말 번역본은 긴즈부르크 지음, 조한욱 옮김, 『마녀와 베난단티의 밤의 전투』(길, 2004)이다.

터' 파헤친 연구가 나타난 것이다. 키스 토머스(Keith Thomas)와 그의 제자 알렌 맥팔렌(Alan Macfarlane)은 인류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마녀사냥이 공동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밝혀냈다.¹⁹⁾ 이들에 따르면 마녀재판은 외부에서 마녀사냥꾼이 와서 일으킨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보다는, 마을 내의 긴장과 압력이 만들어낸 일상적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인류학자들의 지역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마녀가 일종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 마녀로 고발되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불어 닥친 재난의 성격이 아닌, 재난에 직면한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결정짓는다는 해석이다.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은 주로 나이든 여성이었고, 고발자는 그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남자나 그의 가족이었다. 따라서 이 모델에 따르면 부자가 마을의 가난한 사람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인구가 팽창하면서 빈민이 늘어나는 한편,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과거와 달리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더욱 민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러 돌아다니게 되자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훨씬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다. 동냥을 거절당한 빈민이 돌아서면서 투덜거린 말이 이후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나 사소한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빈민을 고발하게 되고, 그들이 마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들의 독특한 해석이다.

토머스와 맥팔렌이 굳이 인류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게 된 데는 역사학계의 편견이 한몫을 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마법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녀술과 같은 것을 역사적 주제로 다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사회인류학자들은 마법을 문화적 맥락에서 보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실제의 현실로 보기 때문이다.²⁰⁾ 특히 이들의 연구는 기능주의적 인류학을 차용함으로써 같은 마을에 사는 고발자의 메커니즘을 파헤친 선구적 연구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서 마녀에 대한 담론 자체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많은 연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한편 이 방법론은 유럽에서 왜 마술의 오랜 전통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기도 했다. 토머스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유럽에서도 백마술과 흑마술의 강한 전통이 있었으며 심지어 교회에 의해 지지되고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술의 존재이유는 삶에서 무력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초자연적 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했고, 동시에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원인으로 삼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¹⁾ 하지만 종교개혁과 더불어 신교는 교회에서 마술적 요소를 걷어내려고 했고, 마술은 미신의 영역으로 추락하고 결국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머스의 방대한 연구는 중세 유럽에서 이른바 정통적인 기독교문화 이외에 대중적 차원의 문화적 전통이 굳건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밝혀낸 개가이기도 하다.

토머스과 맥팔렌의 연구는 마녀사냥에서의 '영국적 특이성'을 강조한다. 영국에서는 대륙과는 달리 마녀가 악마와의 연관성에 근거한 이단으로는 취급되지 않았는데, 대륙에서 정립된 악마론적 이론들이 뒤늦게야 영국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²²⁾ 하지만 당시 유럽

19) Macfarlane, *Witchcraft in Tudor and Stuart England*(New York, 1970); Keith Thomas, *Religion and the Decline of Magic*(New York, 1971).

20) James Sharp, "Introduction" in Macfarlane, *Witchcraft*(London, 1999), p. xv.

21) 중세 유럽 사람들은 질병이나 기타 재앙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 믿었다. 따라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재앙의 원인을 외부적 동인에서 찾고 싶어했다.

22) 학자들은 마녀사냥에 나타난 영국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1. 영국의 마녀는 대체로 가난하고 늙은 할머니였고 다른 마녀와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행동하며 밤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행위도 없

내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인쇄물의 전파양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이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마녀로 고발된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던 이유로 당시 여성들이 사회 내 주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오히려 이들이 사회적으로 최 빈곤층이 아니었다는 반박을 내어놓고 있다.²³⁾ 또한 이들의 연구는 마술이 쇠퇴하게 된 분명한 이유와 그동안 마술에 의존했던 대중이 이후 어떤 대상으로부터 위안을 찾게 되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남겨놓았다.

4. 국가권력과 사법체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류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들이 남긴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먼저 크리스티나 라너(Christina Larner)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비교 분석하며 엘리트와 대중, 종교와 정치를 망라하는 종합적 고찰을 시도했다.²⁴⁾ 그 결과 라너는 마녀사냥에 있어 '대륙적 형태'나 '영국적 형태'와 같은 뚜렷한 구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만약 마녀사냥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지배계층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임했는가의 차이였다는 것이다. 라너가 보기에 '신앙의 시대(Age of Faith)'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농촌사회까지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성장, 특히 행정과 사법이라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국가권력의 팽창과 관계된 것이었다. 즉, 마녀사냥이란 기독교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시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정치적 결정체인 국가야말로 마녀사냥을 불러온 구심점이라는 것이다.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권력의 정당화 과정은 왕권신수설과 더불어 국가권력 자체를 신성화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서 마녀는 온갖 종류의 대중적 일탈뿐 아니라 반란과 혁명을 상징하며, 이들을 숙청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권력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브라이언 르박(Brian Levack)은 마녀사냥의 원인을 지적 기반과 사법적 기반에서 찾았다.²⁵⁾ 마녀사냥이 일어날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는 마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외부의 동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마술의 동인은 바로 악마이며, 악마의 도움을 받는 이는 마녀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악마의 사주를 받은 마녀와 마녀가 행하는 마녀술은 곧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이므로, 제거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발생한다. 스콜라 철학자들의 악마이론이 구체적인 마녀관을 만들어내었다면, 같은 맥락에서 17세기 후반 새로운 세계관의 대두와 맞물린 스콜라주의의 붕괴는 마녀사냥이 왜 쇠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²⁶⁾

었다; 2. 영국 마녀는 악마와 연관되었기보다는 오히려 아프리카의 마법과도 같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 행동하던 사람들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3. 영국의 마녀는 대부분 자신이 부리는 마귀(familiar)를 길렀는데 이들이 마녀의 사악한 행위를 대신 해주곤 하였다; 4. 영국의 경우 마녀재판은 종교 심판이 아니라 민사상의 재판이었고, 따라서 처벌도 비교적 관대하였다. 이에 더해 영국의 마녀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며 처형에서도 화형이기 보다는 교수형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Gustav Henningsen, ed., *Early Modern European Witchcraft*(Oxford, 1990); Babara Rosen, ed., *Witchcraft in England, 1558-1618*(Amherst, 1969) 등을 참조.

23) 마녀로 몰린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에 관해서는 Carol F. Karlsen, *The Devil in the Shape of a Woman*(New York, 1987)의 제 3장, "The Economic Basis of Witchcraft"를 참조.

24) Christina Larner, *Witchcraft and Religion, The Politics of Popular Belief*(Oxford, 1984).

25) Brian Levack, *The Witch-Hunt in Early Modern Europe* [1987](London, [2nd ed.], 1995).

26) 여기서 르박은 다른 르네상스 전문가들과 차별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등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르네상스 유럽에서 스콜라 철학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은 마녀술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플라톤주의가 유럽의 지식체계에서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직자나 법관들은 아직도 스콜라 사상에 젖어 있었으며, 아리스토

특히 사법적 기반은 르박이 마녀사냥의 원인으로 가장 강조하는 요소이다. 중세유럽의 전통적인 사법제도는 고소에 의한 재판제도(accusatorial system)였다. 하지만 13세기 이후 늘어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문에 의한 재판제도(inquisitorial system)가 생겨났다. 전자는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야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동태복수법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동태복수법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해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씌웠던 혐의 내용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분별한 고소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심문에 의한 재판제도는 사법관의 심증만으로도 혐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혐의자를 고문할 수 있었다. 극도의 잔인성을 드러낸 마녀사냥의 고문과정은 이런 사법제도의 변화라는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트가 만들어 낸 악마숭배자로서의 마녀라는 개념을 민중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대부분 문맹이었던 희생자들이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 담긴 문헌을 직접 접할 수는 없었다. 물론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마녀 출판물의 보급이 마녀에 대한 개념을 사회의 중층까지 침투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녀의 정형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바로 사법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마녀사냥의 고문과정과 재판, 나아가 처형을 통해 지식인들이 만들어 낸 악마숭배자로서의 마녀의 모습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사회 저변으로 퍼져갈 수 있었다. 정교하게 짜여진 심문과 죄상의 공표, 나아가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신명심판과 같은 시련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마녀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녀는 윤리적 일탈행위자로 단죄 받는다. 한 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전복시킨 상징체계 속에서 마녀는 반사회적인,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무서운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악마숭배나 이단과 같이 신성성의 영역에 기반한 마녀사냥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마녀사냥의 시기가 종교개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마녀사냥을 일차적으로 종교개혁의 부산물로 보는 것도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런데 마녀사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녀사냥과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여 왔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 카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교적 갈등이 곧 마녀사냥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시각과, 종교개혁은 부차적 원인일 뿐, 오히려 근대국가의 형성이나 기타 요소들이 마녀사냥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르박은 마녀사냥이 루터의 등장보다 거의 백년 앞서서부터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종교개혁은 마녀사냥의 확산에 기여했을 뿐, 직접적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 마녀사냥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국가 모두에서 발생했다. 나아가 이 두 기독교분파는 극심한 종교적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녀에 대하여는 놀라우리만큼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녀사냥이 점차 세속정부의 권한으로 이전되어 갔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테스탄트를 신봉하는 국가에서 교회의 사법권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국가는 마녀사냥을 관장하는 주체가 되었고, 수많은 마녀재판을 통해 입법적, 사법적 권한을 시험하고 확대하며 권력을 가시화해 갔다. 종교개혁과 맞물린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은, 국가가 개인적 도덕성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과정이었고, 신정정치를 강하게 내세운 나라일수록 마녀사냥은 국가에 의해 공인되고 주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녀사냥은 원인이 비록 종교적 영역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오히려 세속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텔레스 철학은 17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시각이다.

5. 성(Sexuality)의 통제

한편 조셉 클레이츠(Joseph Klaits)는 그동안 기존의 연구들이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문제, 즉, 왜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여성²⁷⁾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를 내놓았다.²⁸⁾ 그는 유럽사회에서 마녀사냥을 불러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꼽는다. 이런 시각은 비단 마녀사냥에서의 희생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남자마녀와는 달리 여성을 악마의 성적 노예로 규정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사실 16.17세기의 마녀사냥에서 성적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빗자루타기, 악마가 가진 거대한 성기에 대한 관념, 몸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져 있다는 악마의 표지를 찾기 위해 공개적으로 벌거벗기고 고문했던 관행,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영아식인, 악마의 연회에서 벌어졌다는 난교와 같은 내용들이 마녀재판에서 파헤쳐진 성적인 디테일들이었다.

클레이츠는 이런 성적 요소를 엘리트들이 창출해 낸 이미지로 보면서, 그 상세한 내용들이 마녀사냥을 통해 대중에게 주입되어 갔다고 주장한다. 사회를 완전하게 기독교화 하려던 노력이 실패하자 엘리트는 여성혐오사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사회통제를 꾀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과 절대주의국가의 등장이라는 변화 속에서 새로이 부상한 지배계급은 자기통제, 매너, 금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배자 상을 정립해 간 반면, 대타적 극단에 마녀를 배치했다. 기독교적 전통에서도 여성혐오는 있었지만 이른바 ‘영혼의 개혁’을 외치는 종교개혁을 맞아 반여성 담론은 극대화되기에 이른다.²⁹⁾ 절제하지 못하는 성욕과 악마와의 결탁으로 상징되는 마녀의 이미지는 여성이 위에서 군림하는 ‘뒤바뀐 세상’의 이미지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마녀사냥은 피지배층 문화를 본질적으로 저속한 것으로 치부하는 한편, 마녀를 척결함으로써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우월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었다는 주장이다.³⁰⁾

‘문화적 지배’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을 통해 마녀사냥의 정수를 파헤치려는 클레이츠의 작업은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마녀사냥의 동인을 적절하게 안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즉, 마녀사냥의 책임이 단지 엘리트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의 요구에도 부응한 것이었다는 시각이다. 클레이츠는 악마론은 엘리트들이 만들어 냈고 주입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만치 대중들 사이에는 충분한 긴장이 존재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대중의 고발이 재판과정에서 악마론에 의해 왜곡되고 각색되었어도 이를 둘러싸고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갈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녀사냥 자체를 엘리트와 대중이 함께 참여했던 거의 유일한 갈등 해소의 출구로, 상급문화와 하급문화가 호혜적으로 창출한 독특한 사례로 규

27) 마녀로 희생된 이의 약 80%가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idelfort는 인구학적 분석으로 비추어 16세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약 40%--여성이 남편이 없는 상태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혼, 미망인과 같은 여성들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는 쉽게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Erik Midelfort, *Witch-hunting in Southwestern Germany, 1562-1684: the Social and Intellectual Foundations*(Stanford, 1972) 참조.

28) Joseph Klaits, *Servants of Satan: The Age of Witch-Hunts*(Bloomington, 1985).

29) 중세유럽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둔하고, 약하고 더욱 감각적이며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념이 팽배하였다. 이는 고대로부터 비롯한 전통적인 여성차별 사상에 기독교적 여성혐오가 더해진 혼합체로 볼 수 있다. 마녀사냥기에 나타난 여성혐오 사상을 크게 분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이브의 자손으로써 선천적으로 지니는 원죄; 2. 이성의 결여에서 비롯하는 감각적, 쾌락주의적 특성; 3. 생리, 출산 등과 관련된 경외심; 4. 남성의 성적인 열등감.

30) 마녀사냥과 더불어 여성의 권리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유럽 전역에 걸쳐 부부의 재산권 가운데 특히 여성의 권리가 약화되었고, 길드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었는가 하면 남녀 임금격차도 나날이 커져갔다.

정한다. 이 시각에서 볼 때 결국 마녀사냥이 종결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대중문화가 엘리트문화에 흡수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악마론과 심리분석적 접근

2000년을 전후하여 마녀사냥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³¹⁾ 먼저 스튜어트 클락(Stuart Clark)³²⁾의 연구는 마녀에 대한 지식인들의 사고체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띤다. 즉, 마녀사냥의 발흥이나 쇠퇴라는 도식에서 탈피하여 근대 초 유럽의 사상에 있어 악마론(demonology)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 집중하는 분석이다. 악마론은 당시의 사상적 담론에 있어 주류에 속한 것으로, 자연과학, 역사발전론, 종교적 순수성의 문제, 정치적 권위를 둘러싼 담론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클락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발흥이 마녀에 대한 믿음의 쇠퇴를 불러일으켰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반박한다. 그가 보기에 악마론은 다른 자연과학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한 사조로, 그 나름의 견고한 합리성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악마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당시의 과학적 유행에 편승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클락의 견해는 17세기 후반 마녀고발이나 재판은 줄어들었지만 악마론은 공공영역의 담론에서 계속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마녀술과 정치이론의 연관성을 다룬 부분으로, 근대 초라는 사회에 있어 정치적 지배자와 마녀는 신비롭고 카리스마를 갖춘 비슷한 존재라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자면 마녀사냥의 종결은 정치적 지배자가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해 버리는 셈이 된다.

실제적인 재판이나 처형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 마녀를 둘러싼 ‘믿음’이나 ‘담론’을 더 주목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마녀사냥은 단지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비평이론이나 문학 분야의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심리분석을 적용하는 방법론이 가장 눈에 띄는데, 특히 로빈 브릭스(Robin Briggs)의 『마녀와 이웃 Witches and Neighbours』³³⁾은 마녀사냥 연구의 또 다른 획을 그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브릭스는 마녀재판에서 나타나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적 역학관계를 다룬다. 앞서 언급한 토머스와 맥팔렌의 인류학적 접근 역시 작은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가 마녀사냥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파헤친 연구였다. 하지만 브릭스는 빈부격차나 동양의 거부와 같은 단순한 사안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미묘한 구성원들 사이의 감정적 갈등을 주목한다. 이런 갈등이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생활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근대 초의 공동체가 태생적으로 배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공포

31) 다음은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중요한 연구서들이다. Jonathan Barry, Marianne Hester and Gareth Roberts, eds., *Witchcraft in Early Modern Europe*(Cambridge, 1996); James Sharpe, *Instruments of Darkness: Witchcraft in England 1550-1750*(London, 1996); Diane Purkiss, *The Witch in History: Early Modern and Twentieth-Century Representations*(London, 1996); Gary K. Waite, *Heresy, Magic and Witchcraft in Early Modern Europe*(New York, 2003); Charles Francis Zika, *Exorcising our Demons: magic, Witchcraft and Visual Culture in Early Modern Europe*(Leiden and Boston, 2003).

32) Stuart Clark, *Thinking with Demons: The Idea of Witchcraft in Early Modern Europe*(New York, 1997).

33) Robin Briggs, *Witches and Neighbours: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European Witchcraft*(New York, 1996).

와 미움을 지니고, 나뭇의 방어막과 자구책을 모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브릭스가 예로 드는 한 사례는 마녀처형장에서 만나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결심한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마녀로 몰린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수치심과 서로에 대한 동정, 나아가 결국 공동체의 주변인으로서 기댈 만한 사람은 서로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즉시 결합을 결심했다는 분석이다.

브릭스가 그려내는 근대 초의 유럽의 작은 마을은 강한 공동체의식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암울하고 살벌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마법을 믿었으며, 고발자나 심문관, 증인 모두가 마녀술의 위협적인 힘에 대해 두려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는 일상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마녀사냥은 어찌 보면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당연한 해방구이자, 동시에 모두가 두려워한 억압기제가 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브릭스의 ‘아래로부터’의 접근에서 보자면 국가나 교회의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마녀사냥을 확산시켰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냥의 종결 또한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삶이 산산조각나지 않도록 막아준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데보라 윌리스(Deborah Willis)의 저작³⁴⁾은 브릭스와 마찬가지로 작은 공동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브릭스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심리분석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다. 비평이론 전공자답게 윌리스는 법정기록과 같은 사료뿐만 아니라 악마론을 다룬 철학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마녀고발과 관련된 팸플렛 등의 다양한 문필적 기록을 분석하여 마녀사냥의 핵심이 성적 역학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클레이츠의 접근법의 연장선에 놓여 있지만, 윌리스가 가진 문제의식은 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마녀로 고발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클레이츠가 가부장적 질서를 표방하는 지배층 남성 대 무질서하고 사회전복적인 피지배층 여성이라는 대립구도를 그려냈다면, 윌리스는 여성 대 여성이라는 좀 더 평등한 관계 속의 역학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윌리스는 마녀고발이 모성(matern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녀는 모성이 결여된 여자로, 음부 근처에 있다는 악마의 젖꼭지를 통해 자식이 아닌 악마에게 젖을 먹이는 존재라고 믿어졌다. 아기를 돌보는 일이 여성이 지녀야 하는 덕성이라면, 이와 반대로, 마녀는 주변의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고, 저주를 퍼붓는 악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모성이 결여된 여성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제임스 1세(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이기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사형에 처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문화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시각이다. 윌리스는 마녀사냥에 동원된 모성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 근대 초 영국에서의 모성담론뿐만 아니라, 영아살해에 대한 공포, 강한 여성상의 대두에 대한 경계심 등 다양한 여성혐오 문화를 치밀하게 엮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렇게 두 세기 가까이 마녀사냥은 수많은 학자들을 매혹시키며 집중한 탐구를 불러온 중요한 주제이다. 최근에도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녀재판의 기록들이 새로이 발굴되거나 주요 재판기록이 번역·출간되는 등³⁵⁾ 마녀사냥에 대한 역사가들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비유럽권에서도 연구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을 역사학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마녀사냥을 둘러싸고 역사연구는 끊임없는 탈바꿈과 발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연구성과들은 근대 초 유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혀놓았다. 마녀사냥

34) Deborah Willis, *Malevolent Nature: Witch-hunting and Maternal Power in Early Modern England*(Ithaca, 1995).

35) James Sharpe, ed., *English Witchcraft, 1560-1736*(London, 2003).

을 둘러싼 역사학의 확대는 역사방법론의 변천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다른 주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도 유용한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